

정부와 지자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2018.1.30.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2018.1.29.

행정안전부,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시행 및 결과 분석

교통사고 잦은 곳*에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2015년부터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개선사업이 완료된 136곳의 3년 평균사고 데이터와 개선 후 1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은 교차로 혹은 사거리로, 대표적인 지역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예술가의 집 사거리이다. 이곳의 경우 원거리에서 도로 진입방향이 불분명하여 신호위반 등의 교통사고가 연간 18건이나 발생하였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교통섬을 활용해 신호기를 진행 방향별로 분리하였고, 차로는 적색으로 변경하여 운전자의 통행을 유도하자 교통사고가 6건(71.8%)으로 크게 줄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원인 분석과 맞춤형 개선을 도입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특별점검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단이 시행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586곳 가운데 사고 위험지역 3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곳에서만 총 247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가운데 186건(75.3%)은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선이 시급한 곳에 무단횡단 방지시설 및 횡단보도 설치와 보도설치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올바른 보행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와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예술가의 집 사거리 개선 전·후 모습

자료: 행정안전부(2018),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66% 줄었네", 1월 30일자 보도자료.

*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특별·광역시의 경우 1년간 교통사고 5건 이상 발생한 지점, 시·도의 경우 3건 이상 사고가 발생한 지점.

** 사고발생 7건 이상(특별·광역시는 10건 이상) 또는 사망자 2명 이상 발생지역

광주시, 스쿨존 정비 표준모델 발굴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사업 추진

광주광역시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역 특성에 맞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발굴 및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시범 운영이 적용되는 학교는 광주시 서구 풍암초등학교와 북구 효동초등학교이며, 이들 학교 일대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와 노란 신호등, 태양광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컬러 노면포장 등을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정비도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광주시는 10억 원을 투입해 광주지역 102개교 인근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스쿨존 정비 표준모델 설치 전·후 모습



표준모델 설치 전

표준모델 설치 전

자료: 광주광역시(2018), “광주시, 스쿨존 정비 표준모델 마련”, 1월 29일자 보도자료.